

## APEC 정상회의 유공자 격려오찬

- 우리의 가능성과 잠재력 -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분 한분이 마음속에 다 보람이 있고 자량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아주 흡족하고 체면이 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오신 손님들이 느낌을 말씀들 하시는데 종합해보니까 ‘이 잔치가 모든 손님을 압도했다’, 그렇게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개국 정상은 사실은 거의 세계 지도자들입니다. 그만한 사람이 모이기도 어려운 일인데, 만나서 여러 가지 중요한 토론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논보다 더 큰 성과가 우리 한국의 역량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기도 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해낼 수 있는 가능성, 그 잠재력을 그대로 증명해준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안하고 지방도시, 어쨌든 2위지만, 지방도시 부산에서 그렇게 해낸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 공연 같은 것이 아주 특별이 압권이었는데 대부분의 자원이 역시 부산의 자원으로 그렇게 꾸며졌습니다. 그것도 큰 자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기획하고 세심하게 점검하고 준비해준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준 아이디어고 조그만 거 채택할 때도 거듭거듭 토론하고 정성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저도 감사드리고,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 등급 올랐으니까 국민들이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는 계기입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치하 드립니다. 만찬 다음날 누리마루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부산의 자연도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경치도 한몫하고, 건축물도 그 짧은 기간에 참으로 훌륭하게 지어내고, 모두들 입을 딱 벌리고 표현을 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저를 칭찬합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더니 자꾸 칭찬받으니 칭찬에 치어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그썸하고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아세안+한중일 회의에 갔더니 전부 만나서 한마디씩 칭찬하고, 회의 발언할 때마다 모두에 단 몇 초라도 또 칭찬을 합니다. 근데 통역이 잘 못 전한 것 같았습니다. 통역이, ‘APEC의 훌륭한 성과에 대해, 또 훌륭히 치러낸 데 대해 축하한다’ 이렇게 통역을 하는데, 나는 듣기에 “죽여줍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의례상으로 하는 공치사가 아니라 진짜 감동한 사람들의, 압도된 사람들의 치사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자신문 보니 일면 톱에, 필리핀에 5억불짜리 전자정부 또는 IT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만드는데 우리 한국 업체가 그 일을 땀습니다. 한 회사가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한국의 여러 업체를 컨소시엄으로 조직해서 주로 한국에서 개발한 솔루션을 전부 모아서, 그렇게 조직해서 필리핀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이렇게 연결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